

日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반격

진격

현대 ‘LF 쏘나타’ 2.0 GDI 하이브리드



출력	최고출력 203마력 강력한 힘
연비	ℓ당 16.4km (무게 25kg 늘었지만 연비 기존과 동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km당 102g (보조금 혜택 無)
가격	4300만원 (기존과 동급)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중형 세단 현대 쏘나타와 도요타 캠리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최근 잇따라 출시돼 ‘맛수’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는 이달 초 출시하는 LF쏘나타 2.0 GDI 하이브리드(16인치 타이어)의 연비를 ℓ당 18.2km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했다. 이는 기존 YF쏘나타 하이브리드의 연비(16.8km/ℓ)보다 8.3% 개선된 수치다. 한국도요타가 지난달 18일 출시한 신형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16.4km/ℓ)보다도 연비 면에서 앞선다. LF쏘나타 하이브리드에는 직분사 4기통 2.0ℓ GDI엔진이 탑재됐고 최고출력 156마력, 최대토크 19.3kg.m의 힘을 발휘한다. 차체 무게는 1585kg으로,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1560kg)보다 다소 늘었다. 초고장력강판의 사용 비율이 늘어나고 첨단 사양이 적용돼 무게가 늘었지만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 기술 개발과 하이브리드 전용 6단 자동변속기를 넣어 연비를 끌어올렸다. 부분변경 모델인 캠리 하이브리드도 이전보다 공차 중량은 25kg 늘었지만, 공인연비는 기존과 같다. 2.5ℓ 앳킨슨 사이클 가솔린 엔진과 143마력의 전기모터가 결합해 최고출력 203마력의 강력한 힘을 낸다. 전기모터 동력만으로 차량이 출발하며, 저속 구간이나 완만한 경사에서는 엔진이 멈추고 전기모터가 차량을 구동해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문제는 판매 가격이다. 신형 캠리 하이브리드 XLE의 가격은 4300만원으로 기존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 LF쏘나타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 YF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 동급 가솔린 모델보다 400여만 원(세제혜택 포함) 높게 책정된 점을 감안하



엔진	4기통 2.0ℓ GDI 엔진 탑재 최고출력 156 마력
연비	ℓ당 18.2km (기존보다 8.3% 개선)
이산화탄소 배출량	km당 94g (보조금 혜택)
가격	2900 ~ 3300만원 예상

면 LF쏘나타 하이브리드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 모델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차량에 대해 1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가격 수준은 더 낮아질 수 있다. LF쏘나타 하이브리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94g으로 이에 해당하지만, 캠리 하이브리드는 km당 102g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LF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종전 모델보다 높아져 연비향상 기술 적용에 따른 추

가적인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 현재 LF쏘나타 가격은 2545만~2860만원으로, 보조금 지급 혜택과 가격 인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하이브리드 모델은 2900만~33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존 YF쏘나타 하이브리드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도요타 관계자는 “캠리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베스트셀링카로 꼽혔을 정도로 검증받은 차량”이라며 “한국에서도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고차 팔 때 ‘선루프’ 있으면 70만원 더 받는다

내비게이션은 순정만 인정...스마트키 2개 있어야

여름에 스노타이어 부착 차량 내놓으면 비용 차감

연말은 연식 변경 이전 차량을 매각하는 사람이 늘면서 중고차 시장에 매물이 부쩍 늘어나는 시기다. 중고차 전문업체 SK엔카가 27일 중고차를 팔 때 가격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인을 꼽았다.

우선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SK엔카는 “오픈 중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장치가 파노라마 선루프”라며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관계없이 이 선루프가 있다면 중고차를 팔

때 50~70만원은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비게이션은 순정만 인정받는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의 경우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으면 신제품의 절반 가격인 60만~7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타던 차를 팔 때는 스마트키를 신차 출고 때와 마찬가지로 2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키를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가 분실하면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키를 추가로 제작하는 비용은 국산차

는 5만~10만원, 수입차는 40~50만원 가량이어서 매각할 때 스마트키가 없다면 이 금액이 차감된다. 또 차량 실내 장치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 접이식 전동 사이드미러가 고장났다면 15만원이, 창문이 제대로 여닫히지가 않는다면 개당 5만~10만원이 감가된다.

여름에 스노타이어를 단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4개 타이어를 모두 일반 타이어로 바꾸는 비용도 차감된다.

SK엔카 최현석 마케팅 부문장은 “차량 매각 때 차량 가격이 꺾이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금액도 천차만별”이라며 “일반적으로 실제 수리비만큼 깎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연료 잘못 주입, 시동 걸지말고 정비소로 견인

Q)연료를 잘못 넣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연료를 잘못 넣은 것을 인지한 경우 시동을 걸지말고, 즉시 정비소로 가야 합니다. 특히 디젤(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은 경우에 시동을 켜버리면 상당한 비용의 수리비를 각오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주유 전에는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합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주유 중 잘못된 연료를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 상태에서

서비스 센터로 차량을 견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료탱크 교환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료가 바뀐 지 모르고 시동을 켜고 주행을 하는 경우는 시동이 꺼지고 차가 서버립니다.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은 경우에는 연료탱크 교환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고 가다 주행이 멈춰버린 경우에는 연료 라인의 모든 부품을 다 교체해야 됩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4층상가주택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뒤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 (방3 화2 거1)
4층 - 35평, 주택 (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융 4억 가, 보 2억에 월 270만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